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and times.

주진모, 또 다시 사랑에 목숨걸다

영화 '가비'서 주인공 일리치 役... 목직하고 섬세한 순애보 열연

배우 주진모가 영화 '가비' (加比·커피를 한자로 표현한 옛말) 또 다시 사랑에 목숨을 내던지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이 작품에 깊이 몰입한 그는 시나리오상에서 더 정(靜)적인 인물이었다 '일리치'를 감독과 머리를 맞대고 한층 더 살아있는 캐릭터로 만들어냈다.

이런 영화에서도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고 무엇이든 해내는 순애보를 목격하면서 더욱 섬세하게 표현했다.

"저는 아직은 로맨스를 꿈꾸고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배우예요. 가슴에 사랑을 품고 감정을 표현할 때 제 마음이 움직여요. 만약 떠나와 사랑이 없이 그냥 이 인물을 풀어내려고 했다면 이 정도로 마음의 동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는 겉으로 보이는 단단한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 사랑이란 감정에 약하고 어린 면도 많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에도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라고 했다.

"까다롭게 작품을 고르는 건 아니는데, 겹치기 출연은 못하겠더라고요. 딱 한 번 해봤는데, 스스로 혼란스럽더라고요. 양쪽에 다 공감 안 되고 진정성이 안 느껴졌어요. 또 들어온 시나리오 중에는 상업적으로 성공이 보이는 작품들도 많았지만 꼭 하고 싶은 건 많지 않았어요."

의외로 그의 필모그래피에는 과격적인 작품들도 꽤 있다. 그의 이름을 알린 초기작 '해피엔드'(1999)를 비롯해 김기덕 감독과 함께한 '실재상황'(2000), 노회경 작가의 TV드라마 '슬픈 유혹'(1999) 등은 모두 무난치 않은 작품들이다.

연기 변신에 딱히 집착하지도, 닫혀 있지도 않은 듯했다.

"어떤 부분에서 대중들의 인식에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다면 변하고 싶어요. 사실 죽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비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죽더라도 현실감 있게 죽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배우예요. 보여



줄 게 아직 너무나 많은데, 그만큼 기회가 안 왔다고 생각해. 10년 후에도 주진모의 영화가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게 하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2일(음 2월 20일 戊戌)

Table of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Includes zodiac symbols and text descriptions.

EBS and EBS Plus 1/2 program schedules. Columns include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Dong-A Foreign Language' and 'Daeneungdu'. Includes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Chinese characters for 'He never showed up'.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Little China' and 'Kjasuka'. Includes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Chinese characters for 'I never showed up'.